

The Dongguk Alumni News

제215호

7

2009

http://dongguk.or.kr



동국인은 하나다.
다같이
앞장서 나가자!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및 편집인_전순표 ●발행처_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주소_110-718 서울특별시 중로구 관훈동 197-28 백상B/D 302호 ●전화_(02)733-3991/3 ●팩스_(02)733-3992 ●년회비_2만원 ●기획_한우리SJM



20만 동국인의 영원한 요람!! 명예의 전당 개관

2009. 7. 1.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관 명예의 전당

회관 건립기금기부자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 공

고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총동창회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등록

1. 일 시 : 임시이사회 2009년 8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임시 총회 2009년 8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2. 장 소 : 모교 상록원 3층 교직원 식당
3. 안 건 : 회장·감사 선임 및 인준의 건 / 기타의 건

1. 입후보대상 : 회장 및 감사
2. 등록기간 : 2009. 7. 20 ~ 2009. 8. 17.
3. 구 비 서 류 : 이력서, 서약서,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후보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면 하단 참조)

■_ 동국인에게 보내는 편지

뿌리 깊은 나무

103년의 전통과 저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20만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며 우렁찬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년 동안 동창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할 우리 동창회에 있어 1년에 한번 갖는 대단히 중요한 정기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동문님들과 마음으로부터 성원해 주신 모든 동국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창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좋은 의견을 계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년 전 이곳에서 여러분의 추대를 받고 동창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 8월달이면 2년 임기가 종료됩니다.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최선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공학문을 기초로 공직생활을 거쳐, 기업을 만들어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2년 전 뜻하지 않게 회장에 추대 되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교에서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회장직을 수락하고 6억원을 흔쾌히 기부하였으며 동창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동문들의 협조로 그 동안의 갈등과 법적인 송사를 다 털고, 양분되었던 동창회가 하나가 되어 조용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단·학교·동창회 양해 각서 체결로 동창회관 마련 기틀 다져

우리의 숙원 사업인 동창회관 문제도, 앞으로 학교가 충무로에 건축할 영상센터 건물 내 1개층(약500평)을 동창회관으로 사용하도록 재단·학교·동창회 간에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건축기금으로 제가 기부한 6억 외에 6억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모금하여 현재까지 총 1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창회 운영면에서도 계간으로 동창회보 소식지를 출간하여(6회 발행), 동문간 소통의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동창회 관리면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회비 수입만으로 경상비를 지출하고도 1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창출하여, 이중 일부를 장학기금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동우장학재단의 기금도 장학재단 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모금한 결과,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잉여금 중 일부 장학기금으로 출연

이러한 실적은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을 회고해 볼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신정아 사건과 로스쿨 탈락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뜻에서 모교에 찾아가 항의와 책임추궁을 하자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 _ 동국인에게 보내는 편지

새 희망과 원대한 목표를 향해 '앞장서 나가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실망과 울분이 터져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의와 책임추궁의 실익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봤습니다.

학교 현 진영이 책임지고 사후를 수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동창회의 의견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학교법인 이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사로서 그 현실을 뚜렷이 목격했기 때문에 동창회장으로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현 이사장이 물러나고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가 4번 개최 되었으나 번번히 절차문제, 성원미달 등으로 유회되어 선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창회장으로서 동국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동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냉철히 숙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동문들의 염려와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하면서도 어느 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냉철히 숙고하였습니다.

동창회와 학교, 재단 간에 다시 알력이 생긴다면, 그리고 이것이 교내분규로 인식되어 신문이나 성명서 등으로 외부에 알려진다면, 모처럼 무르익어가는 화합 분위기 속의 조용한 동문사회에 다시 회의와 실망이 팽배되어 동창회의 활성화에 역반응이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했습니다. 물론, 발전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재단이사장에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재단 상임이사에 성관 스님(수원사)이 선임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비 바람에도 꺾기지 버티어 내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03년의 전통과 저력을 가진 우리 동국인입니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고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앞장서 나가자' 라는 구호 아래, 우리 다 함께 새 희망과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용맹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총동창회장 전 순 표

총동창회장 단신

전순표(53/57농학·세스코 회장)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국제로타리 본부로부터 2010년 몬트리올 국제대회 촉진위원회 의원(2010 Montreal Convention Promotion Committee)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0 몬트리올 국제대회 첫 번째 준비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된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에 감독관으로 참석하고 6월 28일 귀국했다.

<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7조 (등록신청)

- 1)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후보자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력서, 서약서 및 제8조 규정의 후보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자격요건)

- 1) 본회 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본회 회장 후보자는 등록 시까지 본회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명시한 별첨 서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 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서약서 >

1. 본인은 회장 등록시

가. 본회 회관 건립기금 또는 본회 운영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본회 발전기금 1억원을 납부하고 나. 본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본회 회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본회 발전기금 5억원 이상에 대한 기부 약정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부 약정한 뒤 발전기금 5억원 이상 중 1억원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년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납부한다.

2. 본인이 제1항 나호 단서 후단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회 임원 선거규칙 제26조에 따라 본회 회장으로서 당선은 그 효력이 상실됨을 인정한다.

제26조 (당선무효) 회장 당선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 발전기금 기부 약정 내용을 당해년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부터 회장 당선자의 당선은 효력을 상실한다.

■_ 화보



- 사진 설명 -

- ①~③ 제71차 정기이사회 및 제28차 정기총회
- ①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문들.
- ② 축하패를 받은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③ 축하패를 받은 홍영표 국회의원 당선자.
- ④·⑤ 캐나다 온타리오주동창회(회장=김동욱) 하계야유회(2009.6.27.). 동문가족 37명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관수 동문은 캐나다 동부 평통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이창기 동문은 동부 평통 위원으로 선임되어 함께 기쁨을 나눈 자리였다.
- ⑥ 원로동문 간담회. (2009. 5. 6)
- ⑦ 개교103주년 기념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에 참석한 동문들. (2009. 5. 11)
- ⑧ 동국인 등산대회에 참석한 4·19혁명동지회 회원들. (2009. 4. 10)
- ⑨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 참배하는 ROTC동문들. (2009. 6. 1)
- ⑩ 개교103주년 기념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현철 동문과 함께 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좌), 오영교 총장.

■_종합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08결산 및 2009예산(안) 만장일치로 의결·통과



본회 제71차 정기 이사회 및 제28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3일 이운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 ▲삼귀의례 ▲국민의례 ▲회장인

사 ▲의안심의의 1부 정기이사회와 2부 정기총회 순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영규(70/77경행·(주)씨큐어넷 사장)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상정된 ▲제1호 의안인 2008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의 건과 ▲제2호 의안인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되었다.

전순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동문님들과 마음으로부터 성원해 주신 모든 동국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창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좋은 의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중에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홍영표 동문(인천 부평을)과 조승수 동문(울산 북구),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제1, 2차관으로 취임한 민승규 동문과 하영제 동문을 축하하고,

참석한 홍영표 동문과 하영제 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년도(2008회계년도) 회비납부실적 우수학과 1위 금상에는 경제학과동문회(3172만원), 2위 은상에 법학과동문회(2260만원), 3위 동상에 농학과동문회(2150만원)가 선정돼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기·류주형·신국주·윤일균·이민휘·이재창 고문을 비롯해 조문영 상임부회장 대표를 포함한 임원과 회원, 홍영표 국회의원,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4~26면>

모교 법인 이사장에 정련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지난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정련스님을 제36대 신임 이사장으로, 성관스님을 상임이사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011년 3월 11일까지다. 정련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모교 개교 103주년 기념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

모교 개교 103주년을 맞이해 총동창회와 모교가 함께 주최한 개교 103주년기념 동국인 골프대회가 지난 5월 11일 40팀(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경기 여주시 소재 금강 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새벽부터 중부지역에 빗줄기가 훑뿌려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했으나 모교 개교 103주년을 축하하듯, 경기 여주에는 구름만 끼고 비가 오지 않아 최상의 조건 하에서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이번 대회의 결산 수익금은 전액 모교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승=조현철(77/84화공) 동화메탈공업(주) 사장 ▲2위=이준희(82/89전자) (주)클래리스 대표이사 ▲3위=이광세(86/88경원) 삼광사 대표이사 ▲메달리스트=송재복(65/69경영) 대한컴퓨터기술(주) 대표이사 ▲총장 특별상=박근호(62/70행정) 모교 명예교수

<협찬자 명단 : 21면 참조>

■_회관건립기금

총동창회관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관

전순표 회장, 문태식 고문 - 흥상으로 영구히 보존 구자선 상임부회장, 류주형 · 박준형 고문 - 인물 부조로

동국인들의 보금자리, 동창회관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에서는 회관건립기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을 영원히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관훈동에 소재한 동창회 사무실에 동창회관 명예의 전당을 설치, 지난 7월 1일 전순표 회장, 문태식 고문 등 30여명의 기부자와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본회 회칙 제36조 2항 '동창회관건립기금 기부액에 따른 예우'에 의거 흥상, 인물 동판, 명패 등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에는 가용 공간의 제약, 동창회관 건립시 이전 · 재정비 등을 고려하여 5백만원(동판 제작) 이상 기부한 분들만 우선 1차적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신축 회관내 명예의 전당에는 기부한 전 동문의 이름을 올려 영구히 보존된다.

또한 본회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전 회원의 역량을 집중해 기금 목표액 50억원을 달성하고, 회관에 입주한 후에는 동우장학회 장학기금 기부자, 본회와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등 분야별로 동국의 발전과 이름을 빛낸 동문들을 기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전순표 회장과 문태식(49사학 · 아주산업(주) 명예회장) 고문, 류주형(53/57농학) · 신국주(46/50사학) · 김동정(53/57법학) 고문, 조문영(56/60법학) 상임부회장 대표, 구

자선(79/81경원 · (주)자연과사람 회장) 상임부회장 등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문태식 고문 가족(좌로부터 차남 문재영 회장, 장남 문규영 회장, 문태식 고문, 3남 문덕영 사장)



▲전순표 회장 가족(좌로부터 장남 전찬민 대표, 부인 김귀자 여사, 전순표 회장, 차남 전찬형 대표)



▲좌로부터 구자선 상임부회장, 전순표 회장, 문태식 고문, 류주형 전 회장.

■_(재)동우장학회

박준형 · 한우삼 이사, 서영준 · 송석환 감사, 권오춘 전 이사 각 1천만원씩 기부



박준형 이사



권오춘 전 이사



한우삼 이사



서영준 감사



송석환 감사

(재)동우장학회(이사장=김동정 · 53/57법학 · 변호사 · 본회 고문) 임원이 장학기금으로 각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기부했다.

박준형(57/63경제 · 신라교역(주) 대표이사 · 본회 고문) · 한우삼(63/69농학 ·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 본회 부회장) 이사와 서영준(64/68법학 · (주)동양 회장 · 본회 상임부회장) · 송석환(64/68농경 · 동진기업(주) 회장 · 본회 상임부회장) 감사가 각각 1천만원씩 지난 3월 초 기부했으며, 권오춘(58/62영문 · 초허당 장학재단 이사장) 전 이사는 지난 6월 8일 1천만원을 기부해

후배 동국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취임 초부터 장학기금 확충에 계속 전력해 온 김동정 이사장은, 2008년에는 본인을 비롯해, 전순표(총동창회장) 이사, 원용선(59/63영문 · (주)남양이앤씨 회장 · 본회 고문) 이사, 구자선(79/81경원 · (주)자연과사람 회장 · 본회 상임부회장) 이사, 장세풍(61/65경제 · 본회 부회장) 한국로스트웍스(주)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각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 받았으며, 올해 추가로 5천만원을 기부받았다.

(재)동우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위원회 개최

장학위원회 위원장에 구자선 이사 만장일치 선출 - 기금확충에 참여 요망



구자선 위원장

(재)동우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보다 많은 후배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장학위원회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장학위원회 위원장에는 만장일치로 구자선 이사가 선출되었으

며, 부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장학기금의 안전을 위해 예금자 보호 상한 금액인 5천만원까지로 분할하여 은행에 예치키로 하는 한편,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주변의 동문들에게 권면하고 동국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현재 장학위원은 유영수(62/66행정), 강병국(64/68농경), 박상호(64/68법학), 송재복(64/69경영), 이제곤(64/68경제), 조은구(64/68경제), 손학중(65/69농경), 성영석(67/71경영), 고용규(70/74정외), 김오현(76/80체교), 허수창(08.3/08.8불원), 엄동삼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_ 모교소식

모교 개교 103주년 기념식

자랑스런 동국가족상 - 홍철희 동문(7명) · 황욱 동문(5명) 가족 수상



홍철희 동문



황욱 동문

위해 한 마음으로 모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처인 모교와 함께 세계속의 동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총동창회장과 모교 총장이 공동

시상한 자랑스런 동국가족상에는 홍철희(70/74경영) 동문 가족과 황욱(81/85불교) 동문 가족이 수상했다.

모교 개교 103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7일 상록원 3층에서 오영교 총장, 임영배 법인 이사장, 전순표 총동창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발원문 봉독, 학교 연혁보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기근속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학술상, 공로상, 자랑스런 동국가족상도 함께 수여됐다.

이날 기념사에서 오영교 총장은 "103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대학이 예전의 명성을 잃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상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순표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20만 동문들은 동국 발전을

◆홍철희 가족 - 7명

△홍정식(37/40불교)-아버지 △조연화(70/74국문)-부인 △홍성용(60/68식공)-형 △홍원식(33/36불교)-삼촌 △홍영춘(61/65 불교)-사촌 △홍영희(73/77사교)-사촌

◆황욱 가족 - 5명

△황성기(41/43불교)-아버지 △김정애(57/59불교)-어머니 △심은숙(81/85불교)-부인 △황영(85/90정외)-동생

입학 30주년 - 79학번 동문 재상봉 행사



모교 입학 30주년 기념 79학번 동문 재상봉 행사가 지난 5월 16일 중강당에서 모

교 최순열 학사부총장, 총동창회 이운영(66/70농학) 사무총장, 모교 이선인(71/76농학) 대외협력단장 등과 79학번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외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올해 입학 30주년이 된 79학번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해 당시를 회상해보고, 모교의 현재 모습도 살펴 볼 수 있게 마련됐다.

모교 불교학술원장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 임명



모교 불교학술원장에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 5월 26일 임명된 버스웰 원장은 1년간 UCLA 교수를 겸임하며 여름·겨울방학 때 연구 및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는 1974년부터 5년 동안 전남 순천시 송광사에서 범명 '혜명'으로 구산스님 아래에서 참선했다.

귀국 뒤 UCLA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학연구소·불교연구소를 세웠다. 원효대사의 '금강삼매경'과 고려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저작 전집을 영문 번역했다.

■ _ 모교소식

동악인의 쉼터 옥상정원 하늘마루

강의실 창 밖 너머로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고, 열린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코끝에 맴도는 이때 우리는 누구나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를 생각한다.

하지만 연속되는 강의와 밀려오는 과제로 나들이 갈 시간을 따로 낼 엄두를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옥상정원 하늘마루가 있으니까!

하늘마루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개방돼 모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현재 하늘마루는 △학림관 △학생회관 △동국관 △혜화관 △학술문화관 △만해관 등 6개 건물의 옥상에 위치하고 있다.

경영학과 학과설립 50주년 기념

50년사 발간 · 동영 50장학회 발족



경영학과와 동문회는 학과설립 50주년을 맞아 '경영학과 50년사'를 발간하고 동영50 장학회를 지난 5월 15일 발족했다. 또한

경영관 2층 MBA 202호를 장학회의 의미를 기리고자 '동영50 강의실'로 헌정했으며, 경영학과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경영학과 50년사'를 발간했다. 또한 경영학과 동창회에서는 '동영50 장학회'를 발족해 경영학과 후학 양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현재 장학기금은 약 1억1천여만원이 조성됐으며, 동영50 장학회에서 마련한 장학기금의 10%를 학교 측이 경영학과 장학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모교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조희영(59/63경영·본회 지도위원) 명예교수, 박희창(66/70경영·유유칼믹(주) 대표이사 사장) 경영학과동문회 회장, 이운영 총동창회 사무총장 등 2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모교 옥상에 조성된 하늘마루

4·19기념 동국인 등반대회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동국인 등반대회가 지난 4월 10일 북한산에서 동문 및 모교 학생·직원·교수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50번째인 4·19 혁명 기념 추모식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한 신승길(58/63경제·본회 지도위원) 동국대4·19혁명동지회 회장과 윤성열(59/63상학·동화기영(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 신임회장, 4·19혁명동지회 회원, 이운영 총동창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교 총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4·19의 용맹, 정진, 구국 정신을 되새기고 모교 도약을 위해 한마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상응원대제전 - 젊음과 열정 만끽

모교의 공식 응원단으로서 교위를 선양하고 있는 백상응원단이 개최하는 제28회 백상응원대제전이 지난 5월 19일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대학 고유의 젊음과 패기, 열정을 함께 느끼고 동국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합의 한마당을 이루려는 취지로 열린 이번 제전에는 10개 대학 응원단이 참여해 대학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본회에서는 진순표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이운영 사무총장이 참석해 학생들과 각 대학 응원단을 격려하고 행사지원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 _ 동문동정

국민원로회의 위원



정재철(49/52정치·유암 문화재단 명예이사장·본회 고문) 동문이 지난 3월 12일 국민원로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6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하고, 주요 국가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서농업협동조합장 이임

이기홍(58/65농학) 동문은 지난 4월 1일 개봉웨딩프라자에서 경서농업협동조합장(5선) 이임식을 가졌다.

중국 흑룡강성 초청 강연



윤천영(59/66농학·오류 애육원 대표이사·본회 상임부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흑룡강성 초청을 받아 흑룡강성 농업관계자들에게 '한국의 현대 농업 및 새마을 운동'에 대해 강연했다.

성옥문화재단 이사장



이화일(61/65상학·조선내화(주) 회장·본회 부회장) 동문이 재단법인 성옥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지난 3월 18일 취임했다. 성옥문화재단은 1977년 전남 목포 최초의 법인 문화재단으로 출발해 조선내화로부터 100억원대의 기금을 출연 받아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문화창달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관음종 종정 취임 법회



홍파스님(63/67불교·27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본회 상임부회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은 지난 3월 6일 대한불교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제7세 종정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최규철(64/66정의·모교법인 이사·본회 지도위원) 동문이 지난 3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한 지난 3월 열린 경북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된 최동문은 모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모교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예뽕꽃방 경영이사



강진원(65/72경영·본회 이사) 동문은 최근 한국꽃배달프랜차이즈인 예뽕꽃방 경영이사로 취임했다.

모교 정각원장 취임



법타 스님(67/74인철·은해사 주지·본회 부회장)이 지난 3월 19일 모교 정각원장에 취임했다. 법타스님은 1965년 범주사에서 주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1974년 일타 스님에게 건담(주석 참조)했다. 스님은 현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경규항(68/76식공·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동문은 최근 한국식품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경동문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속초시민회 회장 취임



손문영(69/73수자원·본회 이사) 현대건설 토목사업부문 전무이사는 지난 3월 2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재경속초시민회 2009 정기총회에서 제6대 재경속초시민회장으로 취임했다.

경덕학원 이사장



김석진(70/77경영·본회 이사) 신도철강(주) 대표이사는 지난 5월 22일 경덕학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1999년 경덕학원 이사로 취임한 김석진 이사장은 지난 1월 동국대학교총동창회 대전지부 회장으로 취임해 동문들의 화합과 참여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동국인 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장



현성스님(72/73행원·본회 지도위원)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는 지난 7월 3일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주석 건담 [建幢]: <불교> 수행 구도(修行求道)가 다른 이의 사표(師表)가 될 만큼 원만하여 법을 전하는 스승에게서 법맥(法脈)을 이어받는 일.

■ _ 동문동정

삼양웰푸드 대표이사



박소문(72/79행정) 동문 이 지난 4월 6일 삼양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웰푸드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979년 삼양사에 입사하여 자금팀장, 홍보팀장, 실수요팀장(식품 영업)을 거쳐 2005년 상무로 승진했다.

유한양행 약품사업 본부장 승진

오도환(74/78사학) 동문은 최근 유한양행 약품사업 본부장(전무이사)으로 승진 발령됐다.

대전건축사회 회장 취임



손근익(77/84건축·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 동문은 최근 대전건축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손 회장은 “현실진단을 통해 내·외적 전략을 세워 협회의 존재와 신뢰를 더욱 강화시켜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생활건강사업부 이사 승진

이대형(78/82회계) 동문은 최근 유한양행 생활건강사업부 이사로 승진 발령됐다.

‘범무법인 정률’ 설립



문한성(79/83법학·분회 부회장) 변호사는 지난 4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로펌인 ‘범무법인 정률’을 설립했다. 범무법인 정률은 기업일반, 구조조정, 기업회생, M&A분야는 물론 그외 모든 법률 분야

4.29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자

인천 부평을 - 홍영표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78/96철학) 당선자는 소탈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추진력과 다양한 경험, 리더십 등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당선자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등을 거쳤다.

울산 북구 - 조승수



울산 북구의 조승수(81/95농경) 당선자는 민주화와 노동·환경·시민운동에 앞장서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당선자는 1998년 무소속으로 울산 노동계의 텃밭인 북구지역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진보 및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에 당선됐다.

에서 전문적인 신견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 힘을 모아 더욱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로타리 3690지구 지구대회 개최



정주화(81/87한의·울한의원 원장·분회 상임부회장) 국제로타리3690지구 총재는 지난 4월 17-18일까지 라마다송도호텔과 부천체육관에서 국제로타리 3690지구 제28년차 지구대회를 개최했다.

로 임용됐다. 천진동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동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신박사는 기업관리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신춘맞이 선서화전 열려



성각스님(97/99문원·분회 운영위원) 망운암 주지 스님은 지난 5월 2일 망운사 금당갤러리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신춘맞이 성각스님 선서화전’을 열었다.

제13회 개인전 열려



손인환(81/91미술·한국조각가협회 감사·분회 부회장) 젠조형연구소 대표는 지난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제13회 개인전(Entering the another World)를 열었다.

경북도 정무부지사 취임



공원식(98/00행정·한나라당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동문이 지난 5월 27일 경북도의 제9대 정무부지사로 취임했다.

남개대학 정교수 임용

신광용(81/88경영) 동문이 최근 중국 천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개대학 정교수

포항 출신인 공 정무부지사는 포항시의회 3선 의원과 의장을 역임했고, 포항 YMCA 이사장 등을 거쳤다.

그는 취임사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등학교관리자동문회 총회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현직 교장·교감들로 구성된 서울중등학교관리자동문회(회장=박일상·70/77국문·동대사대부중 교장·

본회 상무이사) 총회가 지난 4월 21일 모교 상록원에서 40여명의 동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본회에서는 해외로 출타중인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이운영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대독했으며, 이혜은 모교 사범대학 장검 교육대학원장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로 간에 밀렸던 정담을 나누며 즐겁게 진행된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1일자로 교장 및 교감으로 승진, 영전한 동문들의 축하 모임도 겸하여 열렸다.

- ◆교장 승진 ▶임도명(71/78국교)=은성중학교 교장
▶오영수(74/81전기)=노곡중학교 교장
▶권병욱(80/84전산)=녹천중학교 교장
- ◆교감 승진 ▶정광수(74/81국교)=동북중학교 교감
▶조현술(76/82농생)=대동세무고등학교 교감
▶강신일(77/84국문)=대원국제중학교 교감
▶황병근(77/84수교)=미양중학교 교감
▶김정희(국문)=교감
- ◆영전 ▶심갑섭(74/80수교)=광양고등학교 교감
▶전병화(80/87국교)=동작고등학교 교감

식품공학과동문회 정기총회



식품공학과동문회(회장=배영민·68/72식공·(주)하나향료 대표이사·본회 상무이사)는 지난 4월 24일 모교 상록원에서 1백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회장에 이황(72/08식공·일광무역(주) 대표이사)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이강현(68/76식공·모교 학사운영실장)·전영선(69/76식공·기아자동차 국내영업부장) 동문을 선출했다. 배영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식공인으로 선정된 강태봉(64/68식공)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표창패와 함께 부상을 전달했으며, 이상열(62/66식공·2기동기회 회장)·서장훈(63/70식공·3기동기회 회장) 동문에게는 공로패를, 최성섭(65/72식공·명식품 대표이사)·권선도(68/75식공·장충왕족발 대표)·이상운(80/84식공·풀무원건강생활 상무이사) 동문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토목공학과동문회 동문체육대회



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강기영·74/78토목·지케이엔지니어링(주) 대표)는 지난 5월 17일 모교 만해광장에서 동문체육대

회를 열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모교 교수를 비롯해 동문과 가족,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축구, 농구, 줄넘기 등으로 동문의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후배사랑장학기금 2억 목표를 선언하며 동문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 강기영 회장은, 이날 현재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3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토목공학과동문회는 매년 1월에 정기총회, 5월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학생들의 축제인 토목환경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토목공학과 동문회는 67학번을 1기로 하여 현재 43기까지 1000여명의 동문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_지부·지회 소식

북미주총동창회 정기총회

미국 뉴욕에서 5월 22~24일까지 열려

북미주총동창회(회장=김상목·66/70통계)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총회 및 동문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5월 22일 저녁 6시에는 매리어트 티벡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3일에는 친선 골프대회 및 뉴욕시내관광, 24일에는 육군사관학교 관광 등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ROTC동문회

국립현충원서 순국선열에 참배



ROTC동문회(회장=성영석·9기·67/71경영·한국포리머(주) 회장·본회 상무이사)는 지난 6월 1일 동작동 소재 국립 현충

원에서 성영석 회장, 이경석(67/71도시공학·태화인쇄문화 대표이사·본회 상무이사) 수석부회장, 총동창회 이운영 사무총장 등 7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순국선열들에 대한 참배를 마쳤다.

ROTC 15기 동기회(회장=유종철·73/77건축·본회 이사)는 매년 제례음식을 풍성히 준비해 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ROTC동문회는 선후배간의 돈독한 애정을 과시하듯 매년 입관 30주년(2009년도 17기) 축하행사를 1년 후배기수(2009년도 18기)들이 직접 준비를 하는 전통을 확립해, 선후배간의 돈독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정정보도>

본회 회보 제214호 19면 영어영문학과동문회 - 정기총회 겸 송년회 개최 기사 중 '신임회장에 오선호 빅톤상사 대표 선출'이라는 내용을 '진재경 현 회장 유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영문학과동문회 회장은 '진재경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유임' 되었으며, 오선호 동문은 부회장으로 유임되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영문학과 회장을 비롯한 동문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해군·공군 장교

동약의 하늘 아래 한자리에 모이자



청춘의 뜨거운 피가 요동치는 시기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했습니다.

끓는 열기를 조국에 대한 봉사로 승화시키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낸 전우들.

이제는 만나 지난 시간의 추억을 같이 하며, 우리의 모교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 동료로, 전우로, 또 동국대학교 동문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연락처

- 유지흥 (70/74정외) - H.P : 011-9965-8968
- 직장 : 02)732-8999 - 한국헤드콤 대표이사

故 김중배 동문 44주기 추도식

1965년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일회담 반대 학생 데모대의 선봉에 섰다가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아 숨진 김중배 동문(당시 농학과 3학년)의 추도식이 지난 4월 14일 동우탑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6·3동지회(회장 장장순·58/65법학·본회 상임부회장) 회원들과 신동욱 총학생회장, 황주상 불교대학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재학생, 故 김중배 동문의 친동생 김수배 (주)파마켄 대표이사 사장, 총동창회 이운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권오갑 동문(62/66농경·본회 상무이사)의 사회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농협중앙회동문회 - 전찬익 회장 취임



농협중앙회동문회 회장에 전찬익(75/82농경·본회 이사) 농협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취임했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과 활성화에 앞장서 온 농협중앙회동문회의 더욱 향상된 활동이 기대된다.

■_ 종합

장상돈 KISCO홀딩스그룹 회장

13개 계열사 둔 중견 철강그룹 - 국내 최초 박막 태양전지 인증

한국철강은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박막 태양전지 인증을 취득했다. 박막 태양전지로는 국내 최초 인증이다.

박막형 제품의 인증 획득은 곧 제품 보급화의 청신호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신설되는 태양광 발전소 및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방침을 세웠다.

한국철강을 이끌고 있는 장상돈(57/66경제) 회장은 62년 조선 선재에 입사했다. 이후 동국제강 상무·전무를 거쳐 82년 한국철강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85년부터 98년까지 동국제강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2001년 한국철강을 떼어 나와 독립했다.

한국철강은 계열분리 뒤 2002년 환영철강공업, 2004년 영흥철강 및 대흥산업 등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현재 13개(국내 10개, 국외 3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철강그룹으로 성장했다.

한국철강은 지난해 9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

한국철강에서 키스코(KISCO)홀딩스와 한국철강으로 분할했다. 키스코홀딩스가 기존 한국철강의 존속법인으로 남고 한국철강은 이전 한국철강에서 분할 신설해 기존 철근, 단조강, 파이프 등의 사업부문을 그대로 승계했다. 이로써 키스코홀딩스그룹은 키스코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세 곳이 상장했고 이 외에 10개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게 됐다.

분할 전 한국철강(현 키스코홀딩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3분기 한국철강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전년 대비 각각 76%, 327% 증가한 3091억원, 61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19.7%로 포스코(22.55%) 다음으로 높다. 그만큼 철강부문 이익구조가 탄탄한 셈이다.

한국철강은 철강 부문의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태양광 분야의 투자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행라이온스클럽

황길원 신임회장 취임



동행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6월 29일 조남풍(90행원·예비역 육군대장·전 보안사령관) 초대회장, 정창근(73/77무역) 행정대학원장, 이규현 제1부회장, 이운영 본회사

무총장 등 1백여명의 동문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황길원(98행원·분회 상무이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한 업적과 선배님들께서 쌓아 오신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저의 역량과 열정을 다해 품격있는 라이온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김창호 회장은 "봉사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황길원 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신용보증기금동문회

동국발전 위한 방안 논의



신용보증기금 동문회(회장= 권의종·73/77 무역·호남영업본부장)는 지난 6월 19일 모

교 상록원 3층 교수식당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이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석배(71/78경제) 동문의 환송행사를 겸하여 진행됐다. 또한 해외 출장 중인 전순표 회장을 대신해 이운영 사무총장이 참석해 단위 지부·지회 지원 및 활성화와 동국발전을 위한 모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_ 동문소식

박영석 동문 - 한국인 최초 에베레스트 남서벽 개척



박영석 동문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에서 가장 험하다는 남서벽 등정로에 한국인이 개척한 첫 길이 뚫렸다.

에베레스트 남서벽 원정에 나선 산악인 박영석(83/91체고) 대장과 진재창 부대장, 신동민, 강기석 대원은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 15분(한국시간)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박영석 대장과 대원들은 5월 19일 새벽 8350m 높이의 '캠프5'를 출발, 14시간여만에 정상에 올랐다.

500m를 오르는 데 14시간이 걸릴 만큼 악전고투를 거듭했다고 한다.

지난 5월 15일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지 닷새 만의 정상 정복이었다.

박 대장을 비롯한 등정대가 오른 에베레스트 남서벽 루트는 수직 거리가 무려 2500m나 되는 마(魔)의 등정로.

지금까지 수 많은 원정대가 도전했지만 대부분 고배를 마셨으며 영국과 러시아 등정대만이 이 길을 통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 남서벽 루트를 박 대장이 4전5기 끝에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개척한 것.

에베레스트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8000m급 고봉에서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루트를 개척해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원정대측은 밝혔다.

박 대장은 정상 정복 직후 베이스캠프와 무전을 통해 "이 등정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뜻을 전했다.

박 대장은 지난 1991년과 1993년 두 번 도전했다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2007년 세 번째 도전에서 박 대장은 산악인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피눈물'을 흘렸다.

해발 8000m까지 진출했지만 눈사태로 산악계 차세대 주자인 오희준, 이현조 대원을 잃는 악몽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9월 다시 등산화 끈을 조여매고 네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또다시 악천후에 가로막혀 중간에 내려와야 했다.

그런 아픔을 겪었기에 박 대장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상 정복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홍진수 대산약촌 민약연구가

국내 최초로 민약박물관건립 추진



산삼, 더덕, 상황버섯, 산초, 석청, 칩 등 고산과 들판에서 자라는 약초들을 30년동안 연구해 온 민약 전문가가 있다. 대산약촌의 홍진수(98/00경원·본회 상무이사) 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강원도 포천 화현면에 건립을 추진중인 민약박물관에는 그가 지난 30년동안 모아온 수 천점의 민약초들을 전시해 일반인들에게 민약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홍진수 민약연구가는 민약의 효능에 대해 "민약은 한약이나 양약과 달리, 설령 효과는 떨어질지언정 부작용은 절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약의 질환별 효능과 효과를 총 12권의 서적으로 집대성하기 위한 작업을 6년째 진행중이다.

회비납부동문-2009회계년도 회비 (단위 : 만원)

- 알** 1. 회비명단은 가나다순.
림 2. 회비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기해 주십시오.
 3. 회비납부기간 : 2009. 3. 1. ~ 2009. 6. 30.

동문 여러분의 회비 : 소중히/아껴서 쓰겠습니다.

20만 동문 여러분!
 1. 연회비(2만원)는 본 동창회보 제작 · 발송의 주 재원입니다. 연회비 납부는 영원히 지속되는 동문애의 출발입니다.
 2. 앞으로는 연회비를 납부한 동문 위주로 회보를 배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동봉한 지로용지/1년에 한번만!!!)
 3. 주소 불명으로 인한 반송 회보로 막대한 비용 · 인력의 낭비를 예방키 위하여 이사할 때는 변경된 주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외환은행 150-22-01536-0 ◆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특별회비

▲전선표(53/57농학) 330

고문

▲민병천(56.4/58.3일원) 30
 ▲송석구(58/62철학) 20
 ▲신국주(46/50사학) 30
 ▲윤일균(67.3/69.2행원) 32
 ▲이민휘(52/56정치) 20
 ▲이재창(51/55경제) 20

지도위원

▲신상두(60/64법학) 30
 ▲심경도(57/61영문) 32
 ▲조희영(59/63경영) 30
 ▲허천택(56/61영문) 30
 ▲현성스님(72.3/73.2행원) 30

상임부회장

▲박중윤(56/59경제) 100
 ▲서영준(64/68법학) 100
 ▲이두철(89.3/91.2사원) 300
 ▲이재형(64/68불교) 100
 ▲조창현(64/68경영) 100
 ▲채정옥(86/92의학) 100

부회장

▲김규태(93.9/95.8행원) 100
 ▲김오현(76/80체교) 100
 ▲김진선(71/74행정) 100
 ▲박현수(86/90연원) 100
 ▲벌타스님(67/74인철) 100
 ▲부충식(63/70경제) 2
 ▲서정호(71/76경영) 100
 ▲선목해자스님(96.9/98.8불원) 100
 ▲성웅스님(91.3/93.2불원) 5
 ▲손진호(95.3/97.2경원) 100
 ▲신동수(71/75경영) 100
 ▲신정철(60/67경영) 100
 ▲안명근(59/67경영) 100
 ▲양쾌석(93.9/95.8행원) 100
 ▲우순이(55/60정치) 2
 ▲윤부성(61/63생물) 100
 ▲이상윤(93.9/98.8일원) 100
 ▲이상현(54/58경제) 100
 ▲이승성(76/77체교) 100
 ▲이연택(56/61법학) 100
 ▲이화일(61/65상학) 100
 ▲장용순(00/04국제통상) 2
 ▲전부중(80/87사교) 100
 ▲전태성(53/57경제) 100
 ▲정동일(01/05경영, 경외) 100
 ▲정연환(58/62정치) 102
 ▲조은구(64/68경제) 100
 ▲조일성(58/66국문) 100
 ▲채규민(58/75정외) 100

▲최준섭(05.3/07.2불원) 100
 ▲최진수(78/85연원) 100
 ▲최진식(77/83무역) 100
 ▲한우삼(63/69농학) 100
 ▲형중호(56/61법학) 100

분과위원장

▲김중호(64/70임학) 10

상무이사

▲강수일(59/64상학) 20
 ▲고광윤(61/65농학) 20
 ▲권영수(58/64법학) 20
 ▲김덕현(71/75농학) 20
 ▲김삼현(59/65불교) 20
 ▲김성수(64/68경영) 2
 ▲김성호(91.9/93.8불원) 20
 ▲김애주(76/81영문) 20
 ▲김용구(70/74농경) 20
 ▲김용필(57/63영문) 20
 ▲김윤중(67/73정외) 20
 ▲김춘호(69/76전자) 2
 ▲김충석(61/63상학) 20
 ▲김홍우(60/64연원) 20
 ▲박명순(64/68불교) 20
 ▲박종세(92/94경영) 20
 ▲방조원(77.9/78.8행원) 20
 ▲범운스님(95.3/불원) 20
 ▲성낙훈(82.9/83.8행원) 20
 ▲성영석(67/71경영) 20
 ▲심춘섭(57/61정치) 20
 ▲오영수(74/80전기) 20
 ▲윤용숙(93.3/95.2불원) 20
 ▲이범규(66/73농학) 20
 ▲이순우(60/64경제) 20
 ▲이연석(66/74경영) 20
 ▲이재호(79.3/81.2경원) 20
 ▲이창수(80/87회계) 20
 ▲장세균(67/72철학) 20
 ▲장송모(75.9/77.3경원) 20
 ▲전진표(60/64임학) 20
 ▲정광시(79.9/82.2경원) 20
 ▲조국형(58/62정치) 20
 ▲차중근(64/68상학) 20
 ▲최동선(59/63경제) 20
 ▲최병식(59/64불교) 20
 ▲최영철(95.3/97.2불원) 20
 ▲허길남(63/67응생) 20
 ▲허부주(89경원) 20
 ▲해담스님(98.3/01.2불원) 20
 ▲황길원(95.9/98.2행원) 20

이사

▲권수구(75/82국문) 10
 ▲김옥(70.9/72.8행원) 10
 ▲김관수(63/66행정) 20

▲김동길(93.3/95.2경원) 10
 ▲김래동(80.3/81.2행원) 10
 ▲김병희(85/89미술) 12
 ▲김보열(57/62경제) 12
 ▲김장중(62/66농경) 10
 ▲김석기(86.3/89.2행원) 2
 ▲김수창(65/69불교) 10
 ▲김승기(69/73경영) 10
 ▲김영린(64/77법학) 10
 ▲김영환(63/67정외) 10
 ▲김완규(63/70농학) 10
 ▲김완식(64/71농학) 10
 ▲김운락(98.3/99.2사원,00/04법학)10
 ▲김원상(67/71연료공) 10
 ▲김재홍(56/60경제) 10
 ▲김정근(95/02법학) 10
 ▲김정길(63/68인철) 10
 ▲김진길(72/78행정) 10
 ▲김진용(58/65경제) 10
 ▲김장기(95.9/97.8경원) 10
 ▲김창환(65/67경영) 10
 ▲김창희(74/78수학) 10
 ▲김홍찬(57/63법학) 10
 ▲김희수(00/01사원) 10
 ▲류복수(95.3/96.2사원) 10
 ▲문준수(69/74인철) 10
 ▲민경봉(60/64법학) 12
 ▲민병희(63/67상학) 10
 ▲박래은(97/98사원) 10
 ▲박명국(76/83체교) 10
 ▲박수철(53/57인학) 10
 ▲박하서(97.9/01.2사원) 10
 ▲박현숙(84/86경원) 10
 ▲박홍서(68/72통계) 10
 ▲방원식(54/58정치) 10
 ▲백기범(82/88한외) 10
 ▲성순경(81.3/83.2경원) 10
 ▲손문영(69/73수공) 10
 ▲손일환(93.9/94.8사원) 10
 ▲신현태(54/57경제) 10
 ▲신형철(77/81체교) 10
 ▲안규호(97.9/98.8사원) 3
 ▲안병민(68/72도공) 10
 ▲안일환(74/81전자) 10
 ▲양규철(64/68농학) 10
 ▲오경택(74/78도목) 10
 ▲원현기(64/68임학) 2

▲유문희(65/69식공) 10
 ▲유정우(58/63법학) 10
 ▲유지원(65/69응생) 10
 ▲윤만진(94.3/96.2경원) 12
 ▲윤여달(64/68법학) 10
 ▲윤영창(63/67국문) 10
 ▲윤천수(72/75정외) 10
 ▲윤택(61/66경제) 10
 ▲이대로(66/70농경) 10
 ▲이덕원(68/72사학) 10
 ▲이상철(79/86사회개발) 2
 ▲이석우(63/71행정) 10
 ▲이성복(71/75전자) 10
 ▲이승주(89/96농경) 10
 ▲이영길(64/73농생) 12
 ▲이용훈(72/77농생) 10
 ▲이인진(60/63법학) 10
 ▲이재수(87.3/89.8경원) 10
 ▲이재용(64/71상학) 12
 ▲이종만(64/68경영) 10
 ▲이창익(49/52정치) 10
 ▲이청준(67/71경영) 10
 ▲이춘필(99.3/01.2불원) 10
 ▲이필영(63/71사학) 10
 ▲이현중(57/61영문) 10
 ▲임화(51/55법학) 10
 ▲장구환(91.9/92.2불원) 10
 ▲전상열(62/66법학) 2
 ▲전신섭(89.3/91.2경원) 2
 ▲정광훈(65/69상학) 10
 ▲정중호(73/77무역) 10
 ▲정현필(75/79사학) 10
 ▲조석규(68/72수자원공학) 10
 ▲조승철(53/57농학) 10
 ▲조창원(55/57경제) 10
 ▲조현수(60/64농경) 10
 ▲진성스님(04.3/07.2불원) 2
 ▲차문희(72/79정외) 10
 ▲최영식(81/02국문) 10
 ▲최인(64/68상학) 10
 ▲최주익(99/02사원) 10
 ▲한대현(89.9/91.8경원) 10
 ▲한동식(99.9/00.8사원) 10
 ▲한상태(76/80행정) 10
 ▲한성규(65/69물리) 10
 ▲허남윤(97.3/97.8사원) 10
 ▲허남태(79/87조경) 10

▲현해천(73.3/75.2행원) 10
 ▲홍형덕(49/53정치) 10
 ▲황기석(99.3/00.2사원) 10

일반회원

▲강경호(2006국문) 2
 ▲강무등(1971농경) 2
 ▲강신제(1980도목) 2
 ▲강익수(1985건축) 2
 ▲강영열(2004경영) 2
 ▲강해성(1977전기) 2
 ▲이석우(1961물리) 2
 ▲공기태(1986화공) 2
 ▲곽노경(1980경제) 2
 ▲구지승(1960수학) 2
 ▲국기일(1963경제) 2
 ▲기인중(1973경제) 2
 ▲김광우(1978법학) 2
 ▲김광혁(1998건설) 2
 ▲김기택(1989행정) 2
 ▲김덕일(1989국문) 2
 ▲김동진(1980행원) 2
 ▲김동찬(1982식공) 2
 ▲김동철(1978건축) 2
 ▲김동희(2002회계) 2
 ▲김명석(1992정외) 2
 ▲김무권(1976화공) 2
 ▲김병구(1963경제) 2
 ▲김봉수(1968통계) 2
 ▲김상술(2004세무회계) 2
 ▲김성률(1972경영) 2
 ▲김성수(1989전기) 2
 ▲김성자(1994사회복지) 2
 ▲김성원(1976식공) 2
 ▲김승일(1982사학) 2
 ▲김영수(1994회계) 2
 ▲김영윤(1983정외) 2
 ▲김용문(1989산공) 2
 ▲김우중(1996산공) 2
 ▲김원철(1975영문) 2
 ▲김윤규(1973식공) 2
 ▲김익수(1973건축) 2
 ▲김인식(1971경제) 2
 ▲김인태(1961영문) 2
 ▲김재용(1969영문) 2
 ▲김정만(1962국문) 2
 ▲김준근(1996화학) 2

▲김진원(1991전산)	2	▲이강식(1993전학)	2	▲정구인(1964국문)	2
▲김진하(1975무역)	2	▲이경우(1952국문)	2	▲정기석(1959사학)	2
▲김창식(1965국문)	2	▲이근양(1952정치)	2	▲정동진	2
▲김철(1996불원)	2	▲이동명(1986불교)	2	▲정영진(1988전산)	2
▲도상열(1958수학)	2	▲이동형(1980공경)	2	▲정진하(1989전산)	2
▲류수택(1967경영)	2	▲이병우(1985토목)	2	▲정현(1991산공)	2
▲문송국(1985회계)	2	▲이상길(1996영문)	2	▲정호영(1985건축)	2
▲민병천(1986산공)	2	▲이상운(1978건축)	2	▲조규영(2008경제)	2
▲민현석(1965국문)	2	▲이상현(2002생물)	2	▲조남기(1987경영)	2
▲박광래(1961경제)	2	▲이성오(1992영화·영상)	2	▲조민규(1998건축)	2
▲박부남(불원)	2	▲이양길(1968인철)	2	▲조성라(1965영문)	2
▲박영길(1968화학)	2	▲이영석(1963국문)	2	▲조성일(2001국제관계)	2
▲박용섭(1952국문)	2	▲이영운(1995행원)	2	▲조양기(1981건축)	2
▲박인동(1986사회개발)	8	▲이원희(1990경영)	2	▲조원삼(1978전자)	2
▲박중배(1980토목)	2	▲이장철(1962사학)	2	▲조일성(1966국문)	2
▲박중섭(1994경영)	2	▲이재필(1983농경)	2	▲조태희(1974국문)	2
▲박중철(1988산공)	2	▲이재필(1983농경)	2	▲주원규(1965국문)	2
▲배주환(1979전기)	2	▲이정근(1992화공)	2	▲지응중(1980건축)	2
▲서승열(1971법학)	10	▲이정숙	2	▲차진구(1982건축)	2
▲소의정(1965식공)	2	▲이정훈(2001건축)	2	▲최경근(1961생물)	2
▲신재현(1961영문)	2	▲이준재(1978화공)	2	▲최영대(2001사원)	2
▲안병조(1970경제)	2	▲이지형(1994철학)	2	▲최우수(1981경제)	2
▲안희백(1978토목)	2	▲이진삼(1993행원)	2	▲최종열(1986토목)	2
▲약산사(사찰)	2	▲이진철(1979화학)	2	▲최중훈(1968국문)	2
▲양친사(사찰)	2	▲이충섭(1981조경)	2	▲최희륜(1964생물)	2
▲여인근(1964입학)	2	▲이태분(1994일원)	2	▲탁병은(1981공경)	2
▲염진상(1972법학)	2	▲이학설(1961법학)	2	▲하한기(1984건축)	2
▲오세청(1967상학)	2	▲이해도(1965국문)	2	▲학명스님(불원)	2
▲오완석(1997응생)	2	▲이희규(1959생물)	2	▲한상복(1985식공)	2
▲오희영(1980조경)	2	▲임경섭(1961사학)	2	▲한영수(1983수학)	2
▲유광진(1981전기)	2	▲임영근(1999산원)	2	▲한중옥(1970경제)	2
▲윤성덕(1997검공)	2	▲임종립(1990철학)	2	▲한장욱(1962영문)	2
▲윤우천(1984토목)	2	▲자원사(사찰)	2	▲함원식(1960사학)	2
▲윤청광(1963영문)	2	▲장성관(1957국문)	2	▲현승유(1972경제)	2
▲윤태평(1970농경)	2	▲장영상(1973식공)	2	▲황규직(1979영문)	2
▲윤홍열(1951영문)	2	▲장계현(1987법학)	2	▲황영대(1986선학)	2
▲은민수(1987전기)	2	▲전웅식(1993경제)	2	▲무기명(30명)	60
▲은세곤(1961사학)	2	▲전창원(1957경제)	2		
▲이갑훈(1967불교)	2	▲정광호(1994경영)	2		

4·19혁명동지회

신임회장에 윤성열 동문 취임



4·19혁명동지회(회장 =신승길·58/63경제·본회 지도위원)는 지난 3월 17일 YMCA회의실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윤성열(59/63상학·동화기영(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5월 14일에는 경기 하남시 소재 우리 아리랑에서 총회를 열어 윤성열 회장의 취임을 인준했다.

한국 영화계 거목 유현목 감독 별세



‘오발탄’ ‘아낌없이 주련다’ 등으로 유명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목 유현목(46/49문학·본회 지도위원) 감독이

지난 6월 28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84세. 유 감독은 2007년 뇌경색으로 입원한 뒤 최근 당뇨합병까지 겹쳐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전후 어둡고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신과 인간의 실존적 문제도 진지하게 성찰한 작가주의 감독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40여 편을 헤아리는 그의 영화들은 전후 예술가들이 받은 실존주의의 영향, 좌우의 이념대립, 해방 이후의 불안한 정세, 고향에 대한 상실감, 산업사회 속의 인간 소외문제까지 다채로운 세계를 망라한다.

특히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그린 ‘오발탄’은 영화학도들이 반드시 봐야할 고전으로 꼽힌다. 국내 영화인들로부터 20세기 최고의 한국 영화로 선택되기도 했다.

모교 개교 103주년 기념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 협찬 동문

- ▲전순표(총동창회장)=100만원
- ▲오영교(모교 총장)=김치냉장고(100만원 상당)
- ▲정상영(55/61법학)=이천쌀 200포(포당 3만5천원 상당)
- ▲구자선(79/81경원)=1,000만원
- ▲김만식(59/63경영)=몽고간장 180명분
- ▲박종윤(56/59경제)=100만원
- ▲박준형(59/63경제)=100만원
- ▲원용선(59/63영문)=50만원
- ▲홍파스님(63/67불교)=떡 180명분
- ▲서영준(64/68법학)=100만원
- ▲한우삼(63/69농학)=드라이버 1점
- ▲송석환(64/68농경)=100만원
- ▲허수창(08불원)=300만원
- ▲우태주(66/70경영)=골프공 10세트
- ▲송재복(65/69경영)=100만원, 드라이버 1점
- ▲김환배(68/72연료공학)=주유권 10매(50만원)
- ▲최태석(전산)=비데 1점(40만원 상당)
- ▲차민수(69/73경제)=500만원
- ▲오정석(72/79농학)=맥주 10박스, 소주 10박스
- ▲김동규(74/81정외)=100만원
- ▲김오현(76/80체교)=300만원
- ▲하한기(77/84건축)=100만원
- ▲김우종(89/96산공)=2만원
- ▲총동창회=개성홍삼 농축액 골드 26점, 봉일 홍삼 절편 16점, 유자차 48점
- ▲불교학과동문회(회장=홍영춘·61/65불교)=100만원
- ▲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강기영·74/78토목)=100만원
- ▲건축공학과동문회(회장=박미진·75/79건축)=100만원
- ▲동심회(회장=송석환·64/68농경)=50만원
- ▲동악회(회장=서영준·64/68법학)=100만원, 비누 200개(100만원 상당)

제 71차 정기이사회 및 제 28차 정기총회 보고 내용 (요약)

보고자 : 사무총장 이운영

1. 업무보고내용

첫째, 동창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순표 회장 취임과 동시에 내건 구호 '동국은 하나다' 라는 기치 아래 지난 세월의 동문 간 갈등, 양분된 진영의 법정송사 등을 다 털어버리고, 화합과 안정기조 속에 조용한 전진의 기틀을 굳혀 왔습니다. '다함께 앞장서 나가자' 라는 정신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둘째, 유일한 공약 사업인 동창회관건립을 실현단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만 동문의 인식처, 구심점(HUB)역할을 할 동창회관이 접근성이 최상인 필동 충무로 전철역 바로 앞에 건축될 랜드마크 빌딩, 차경 충무관에 한개 층 약 1,650 여㎡(500여 평)의 규모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외관건립기금 모금에 오조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 회장 취임 후, 본인이 기부한 6억원과 모금한 6억5천만원 등 12억5천만 원의 모금실적을 거두었고, 전임 회장 인계금액 4억2천만 원을 합쳐 약 17억원의 건축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 중 465백만 원은 총동창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고, 1,235백만 원은 기부자의 소득세, 법인세 면세가 가능한 모교 명의로 예치하여 관리 중입니다.

모교명의 예치금은 총동창회와 모교인감을 공동 날인하여 관리중입니다.

이 예치금의 원리금은 전액 동창회관 건축비용으로만 집행될 것입니다. 임원·동문님들께선 만나는 동문들에게 이 점을 잘 전달해 주시고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도록 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착공과 동시에 20만 동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면 50억원 목표액도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 전망하며, 준공 후 잔여 금액은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전액 충당할 것입니다.

여러 동문 임원들의 애정 어린 참여와 협력을 양망합니다.

넷째, 동창회보 소식지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간으로 발행하여 동문 간 소통의 간격을 단축하였습니다.

변경주소 확인이 안 되는 약 9%내외의 반송회보로 비용과 인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니 회원들에게 정확한 주소로 우송될 수 있도록 연회비 2만원 납부를 권유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후배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과 지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재학생들 축제 모임 등 행사에 참석하여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 이월금중 유동성 유지에 필요한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장학기금에 전입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학기금 확충에 계속 힘을 보탤 것입니다.

여섯째, 동창회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경영개선을 시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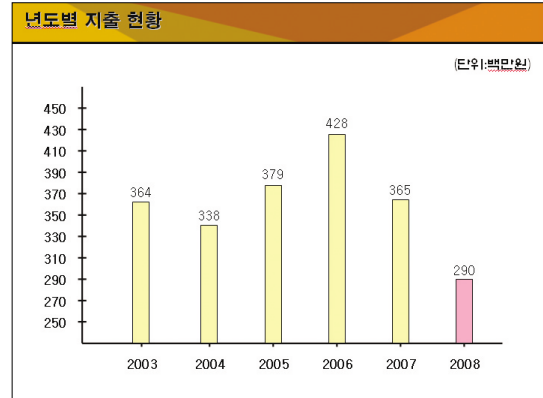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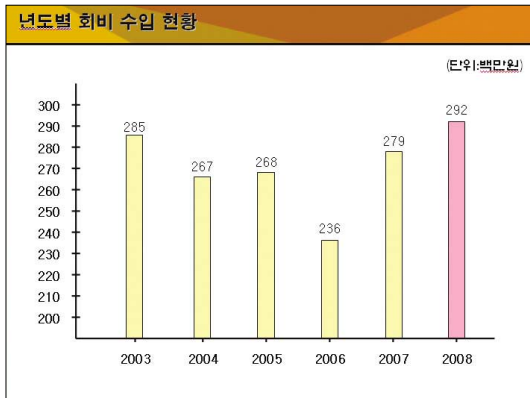
이 내용은 2008 회계년도 결산보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_ 2009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2009. 5. 13 개최

2. 2008 회계년도 결산보고

가. 수입 및 지출 현황

수입은 임원회비, 일반회원 년회비, 졸업생 입회비 등 회비수입이 2억9천2백만 원, 수입이자, 회의 및 행사 참가비 등이 4천4백만 원으로 회계년도 중 총 3억3천6백만 원이 수입되었으며, 전기이월금 6천2백만 원을 합친 총수입이 3억9천8백만 원입니다.



지출은 조직강화비 5천5백만 원, 경조비 2천9백, 인건비 6천1백, 회보간행비 3천1백만 원 등 총 2억9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차기 이월금은 1억8백만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08 회계년도 결산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순수한 년회비 수입 292백만 원 만으로 경상비 지출 290백만 원을 충당하였다는 점입니다. 총동창회 역사상 처음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회비 납부에 협조해 주신 임원·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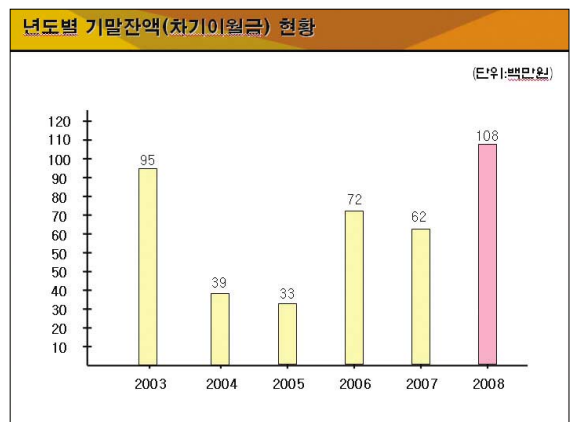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동창회관건립기금은 년도 중 243백만 원이 모금되어 총 누계 약 17억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차기 이월금 현황

통상적인 경상수입과 경상지출 만으로 1억 원 이상의 이월금을 시현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전순표 회장님의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비용 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임원·회원 여러분들이 내주신 회비를 한 푼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두 명의 직원들도 2007년 이후 급여가 하향 조정 되고 동결된 상태에서도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묵묵히 긴축기조 유지에 잘 협력해 왔으며, 사무총장은 년봉급여제에서 활동비 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가장 큰 지출항목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 회장님께서도 당초 취임식에서 말씀하신대로 총동창회와 모교에서 받은 은덕을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창회 관련 활동비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동창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일정기준 금액 이상의 경조사 비용이나 후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비용으로 추가하여 지급하는 등 발전기금 6억원 이외에도 기천만원의 사비를 지출함으로써 본회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_ 2009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2009. 5. 13 개최

직원 퇴직금은 전 회장님 취임 후 2007년 10월 이후로는 년봉제를 실시하여 누적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나, 전임 사무처장, 여직원 퇴직 시 퇴직급여 증당금 적립금이 전액 소진되어 남자직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액 4천4백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월 1백만 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액 1천4백만 원과 금차 이월금 중 일정 금액을 이달 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지급 청산코자 합니다.

2008 회계년도 중 퇴직급여 적립금 1천2백만원이 회계년도 기간 외 발생 지출입을 감안하면 2008년 기말잔액은 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3. 2009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비수입 예산액은 380백만 원, 수입합계 426백만 원으로 잡았으며 이는 2008년도 수입예산 합계 370백만원 대비 115%이며, 지출예산은 372백만 원으로 2008년 지출 예산액 369백만 원 대비 101%입니다.

경영마인드와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2008 회계년도 말 1억 8백만원의 150%인 1억 6천 2백만원 이상의 차기 이월금을 시현코자 합니다.

회장님의 예산절약 노력과 개인 경비부담이 송구스럽기는 하나, 지금과 같은 경영관리 체제로 2~3년만 지속되면 총동창회의 안정된 재정기반이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임원·동문들이 적극 참여하고 성원을 모아주시면 매년 1억원 이상을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2008년도 결산보고와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심의·승인되었습니다.)

권영택 동문 출판기념회



권영택(73/77인철·철학박사·진선여자중학교교장·불교전각종 대원심인당 주교) 동문이 펴낸 '구석구석 숨은 서울의 역사이야기' 1, 2, 3권

과 '육바라밀' 출판기념회가 지난 4월 2일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 4층 메모리스볼룸에서 열렸다. 권영택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연구활동과 학생지도 및 진각중에서 교화활동을 통해 10권 이상의 책을 펴냈지만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처음”이라며, “오늘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좋은 날 좋은 인연으로 만난 여러분에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불교전각종 종의회의장, 교육위원장 등 중단 원로 관계자들과 학교법인 회당학원 한기수 이사 및 진선여중고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선희 동문 - 음반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



'이유없는 이별' (정귀문 작사 / 김리학 작곡/정경천 편곡)이란 타이틀로 가수로 데뷔한 김선희 (01/05한국음악) 동문.

햇순 돌아난 소나무 가지 위에서 비상하려는 학처럼 수려한 외모와 판소리로 같고 딱은 가창력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의 트롯트 데뷔곡 <이유없는 이별>을 폭발하는 힘과 거침없는 고음 처리로 열창하고 있다.

특히 <팔도아리랑>은 신민요 가락에 경쾌한 디스코 리듬이 접목되어 판소리에서 딱은 김선희 동문의 가창력과 흥이 어우러져 어깨춤이 절로나게 한다.

무형문화재 제5호 예능보호자인 성장순 선생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와 심청가 완창을 사사받은 김선희 동문은 트롯트 가요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기대주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